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박양원
주간 황문수
편집장 송종길
인쇄인 방우영

서울 캠퍼스
13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교환(96) 0061~5(96)3901~5
(96) 9800~5(96)4341~3
직통 (963) 5849
수원캠퍼스
170-73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1
☎ (764)6131~3 (764)6188
(0331)-(8)-6130~9

제833호 <주간> 1985년 5월20일(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인가 / 1964. 1.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1】

민주의 순교자여! 정의를 말하라

금주 광주항쟁주간, 비상학생총회등 열려

총학생회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광주 대학살 원흉 처단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학생총회등을 개최한다.

이번주 행사일정을 보면 광주항쟁진상규명을 위한 비상학생총회가 오는 23일 본관앞 민주광장에서 열리며, 동부지역 평의회 2차집회가 오는 21일 본교 同장소에서 열린다. 또한 전국학생 총연합회 5차대회가 2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제기간중이던 지난 16 17양일간 80년광주사태에 따른 미국의 공개사과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17일 대동 줄다리기에 앞서 진행된 광주 영령 추모식에서 김시환 총학생회장은 추모사를 통해『광주민중항쟁은 이나라 민주주의의 사망인 동시에 부활의 잉태였다』고말했으며 이어 광주에서온 메세지등이 낭독되었다.

추모식과 줄다리기에 이어 2천여명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등룡문과 후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16일에도 오후 2시부터 총궐기대회를 마친 뒤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중 박경분 (의예·2) 양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경희의료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지병으로 인해 파편 제거 수술이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

수원캠퍼스에서도 지난 17일 광주민중항쟁재현극을 마친 뒤 1천여명의 학생들은 가두진출을 시도 1시간 30분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중 장인호 (경영·1)군이 최루탄 파편에 우안 공막열창상을 입어 경희의료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실명의 위험까지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김명훈 수원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18일 현재 석방되지 않고 있다.

수원 학생증 재발급률 1천5백명, 38%로 저조

수원캠퍼스 재학생 학생증 재발급률이 집계.발표됐다.

학생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된 재발급기간중 학생증을 새로 발급받은 학생은 대상인원 3천9백78명중 1천5백14명으로 38%에 그쳐 이번주중으로 추가발급을 한다.

애지원 오픈 하우스祭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제1회「애지원 Open House」제가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애지원앞 광장과 식당서 열렸다.

애지원 자치운영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7일의 전야제에 이어 18일에는 바자회, 시화전및 농악반·검도·사격·복싱부등의 시범이 있었다.

캠퍼스 단상

부끄럼없는 5월 하늘

그날의 하늘, 껌데기는 가라고 외치던 무덥던 폭염의 하늘아래 그 하루 모자람을 모자라다 외치고 부정을 부정이라 외치던 얼굴들이 하늘에 가득 찼던 그 하루.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외쳤다. 조국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소리내어 조국을 불렀다. 젊은이여! 저 푸른 5월의 하늘에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성수 記者>

대의원 총회 의장 선출

선거시행세칙 마련, 23·24일중 임시총회

대의원총회 결성준비위원회 (이하 대준위)는 선거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지난17일 마련하고 오는 23, 24 양일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피선거권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②후보등록은 임시총회에서 추천과 3회이상의 재청을 받은자③당선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투표자로 하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한다등이다.

선거관리위원은 대준위위원들이 겸하게 되며 대준위는 지난 14일 대의원 총회에서 단과대학별로 새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1차 총회 때 구성된 준비위원의 활동이 빈약하고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아 재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硏두발검사실시 중금속함량파악위해

산업환경연구소에서는 한국대학생 모발중 중금속 함량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백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머리 뒷부문에서 0.5g에서 1g정도의 머리카락을 잘라 봉투에 넣고 학과 성별 등을 기재하여 오는24일 까지 서울은 의약관 655호실, 수원은 산업환경연구소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분석결과를 알려주며 분석비는 무료다. (6면 광고 참조)

경희 어문학 발표회 23일 시청각 교육실

국문과주최 제7회 경희어문학발표회가 오는 23일 오전 9시 도서관 시청각교육실에서있다. 어학과 현대·고전문학에 대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서정시를 통해 본 한국인의 서정」(김병화·2) 등 총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수영장등 年회원 모집 全 경희가족 대상으로

체육대학에서는 지난달 15일 수영장을 개장함에따라 오늘부터 교직원·학생·경희 가족을 대상으로 수영장과 기타부속시설을 이용할수있는 1년회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1백60명으로 교직원·학생은 회비가 6개월에 9만원, 경희가족은 1년에 24만원이며, 접수는 체대 교무실로하면 된다.

회칙 심의소위 구성

교수 4·학생 5명, 쟁점 논의

총학생회회칙 교수·학생공동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교수 4명·학생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문교부 5원칙등 주요쟁점을 논의토록했다.

이에따라 전체회의는 당분간 열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양측 의사가 조정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시킬 방침이다.

소위원회의 교수대표는 김성태(법률·위원장)도정일 (영문) 정복근 (물리) 김경훈 (기계교수) 등이며 학생대표는 미정이다.

알라스카 주립대학서

조영식이사장에 명예法博수여

미국 알라스카주립대학은 조영식이사장에게 지난10일 세계평화운동의 업적을 인정,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알라스카주 빌 쉐필드주지사는 지난5월8일 조이사장을만난자리에서 6월을「한국—알라스카 교육협력의 달」로 선포하고, 앞으로 알라스카의 각급학교및 환태평양국가에 있어서 교육교환및 국제교육의 연구를 지원할것을 약속했다.

한편 조이사장은 이를위해 지난 5일 출국했었다. 조이사장은 유엔을 포함한 17개국에서 명예박사학위및 훈장을 받은바 있다.

지리과 춘계 장기답사 울릉도등서 지질 조사

지리학과 춘계장기답사가 오는 20일부터 5박6일동안 전북 진안일대등에서 열린다.

실습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을 위해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답사에는지질·지형등을 조사하게되며 학년별 답사지는 다음과같다. ▲1학년 : 전북 진안, 전남 구례일대▲2 : 전남 해남군 일대▲3 : 강원도 대관령 일대▲4 : 울릉도

법대 행시 모의고사 민법총칙등 5개과목

법대 제3회 행정고시 모의고사가 오는 25일 오전9시 본관 48강의실에서 실시된다.

객관식으로 출제될 同모의고사의 과목은 민법총칙, 헌법,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등이다.

한편 사법고시모의고사는 오는 6월8·9일 오전9시에 있을것으로 알려졌다.

가관과 세미나 개최

가관과 학술세미나가 오는 23일 오후1시 A·V센터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학술부 스타디 그룹의 연구발표회인 이번 세미나에서는「아동에게 미치는 T·V의 영향」(안영란·4)「인간과 주거환경」(김문숙·3)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전국 생물과 체육대회

전국 생물학과체육대회가 오는26일 오전9시 본교 대운동장에서열린다. 총21개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의 종목은 축구, 농구, 릴레이등이다.

지난해 성신여대에서 열린체육대회에서는 본교 생물학과가 우승한바 있다.

사회대 모의상사 중재 23일, 공대 시청각실

사회대 무역학과주최 제2회「모의상사 중재」가 오는 23일 오후1시 이공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교 재학생은 물론 서울·수원 캠퍼스 무역학과와 용인·수원지구대학 학생도 참가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발생되는 무역장벽을 가정 수출입 당사국간의 중재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방관속에 끝난축전

단축마라톤·대동놀이등 가져

개교 36주년 기념 목련축전이 지난 17일 대동놀이와 광주민중항쟁재현극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일반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 신규서클연합심포지움·전경과의 대화등은 무산되거나 연기되었다.

주요행사결과를 살펴보면 16일의 단축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은 손성민 (남자·법률·2) 유선혜 (여자·간호·4) 양이 각각 차지했으며 단체부 우승은 경영학과가 했다.

이공교육관앞 운동장에서 신갈입구까지 왕복 8㎞ 구간에서 벌어진 심장병어린이돕기 단축마라톤대회에서는김윤동 (남자·체육·1) 김재정(여자·영문·1) 양이각각우승을차지했다.

또한 체급별 장사씨름대회에서 사자장사급(90 ㎏이상)에는 문주현 (회계), 고황장사(71~80㎏) 황충연(사학), 목련장사(66~70㎏) 윤창호(경영), 3등장사(65㎏이하) 김두홍 (경영)군이 각각 우승했으며 현대데메모3종경기의 1위는 윤태용군의 7명이다.

마지막 날의 대동놀이와 광주민중항쟁재현극에는 각각 2천여명이 참가했으나 대동놀이 준비과정에 있어 줄꼬기작업이 일부학생에 의해 이루어 지는 등 참여부족이 두드러졌다.

<관련기사9면>

「경희영화제」개최

22일부터 4주간 도서관서

영화연구회 주최 경희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도서관 시청각교육실에서 열린다.

영화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이번 영화제 기간중에는 75년도 작품인「영자의 전성시대」등 5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선 감독)=22일 오후1시·3시·5시, 23일 오후3시·5시, 24일1시·3시▲히로시마 내사랑 (알랑레네 감독)=29·30·31일 (이하 상영시간 추후공고)▲승의 눈물, 서울축제, 그여름 (개인작품)=6월5·7일▲보이체크 (베르너 헤어쵸크 감독)=6월12·13·14일)

한편 영화연구회에서는 하계방학중 영화제작을 위해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1학년 병영집체교육 28일 입소

기말고사 1주 늦춰 6월24일부터 실시

1학년 병영집체교육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박5일 동안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실시된다.

출발은 수원캠퍼스 학생이 잠실운동장 앞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며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출발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잠실을, 총학생회는 학교를 주장하고있다.

한편 교무처에서는 1학기 학사일정을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은 기말고사와 하계방학기간에 관한 것으로 기말고사는 종전보다 1주일 늦춰져 오는 6월24일부터 실시되고 하계방학도 단축, 8월26일에 2학기 개학을 한다.

제3회 경희 바둑왕전 이동기군등 3명 우승

기우회주최 제3회 경희바둑왕전에서 갑조의 이동기(화학·3) 군등 3개조 6명의 입상자가 결정됐다.

총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양일간 외국어 교육관 3층 테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각조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갑조 (1~3급) : 우승 이동기 (화학·3) 준우승 이상욱 (수학·2) ▲을조 (4~6급) : 우승 남욱현 (기계·4) 준우승 오명철 (교련조교) ▲병조 (7급 이하) : 우승 권오악 (서반아·2) 준우승 김종연 (기계·3)

한편 시상식은 오늘 오후5시 기우회실에서 있다.

校是塔

"울 수 있는 者의 눈을 다치게 한 者 그 누구인가"

▼요즘 거리는 일찍 몰려온 더위때문에 사람들은 팔을 걷어부치고 그늘만 찾아다니며 걷고있다. 더러는 삼삼오오 짝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도 날씨 탓인지 통 말을 안하려하고, 눈살만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 대학가 주위의 모습은 더욱 그렇다. 눈살뿐 아니라 코를 찡그리고 마르지도 않는 눈물을 줄줄 흘린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줄행랑을 치는 여학생도 많이 볼 수 있고, 의료원으로 뛰어가는 어떤아줌마의 등에 보자기로 싸인 어린애의 울음과 아줌마의 욕설이 결코작지만은 않은것 같다.

일전에 시내 모 대학에서「無石無彈」이라는 구호를 내건 경찰에 맞서서 학생들은「無彈無石」이라는 구호를 부르짖었다 한다.「石」자와「彈」자의 자리바꿈 하나로 의미는 1백80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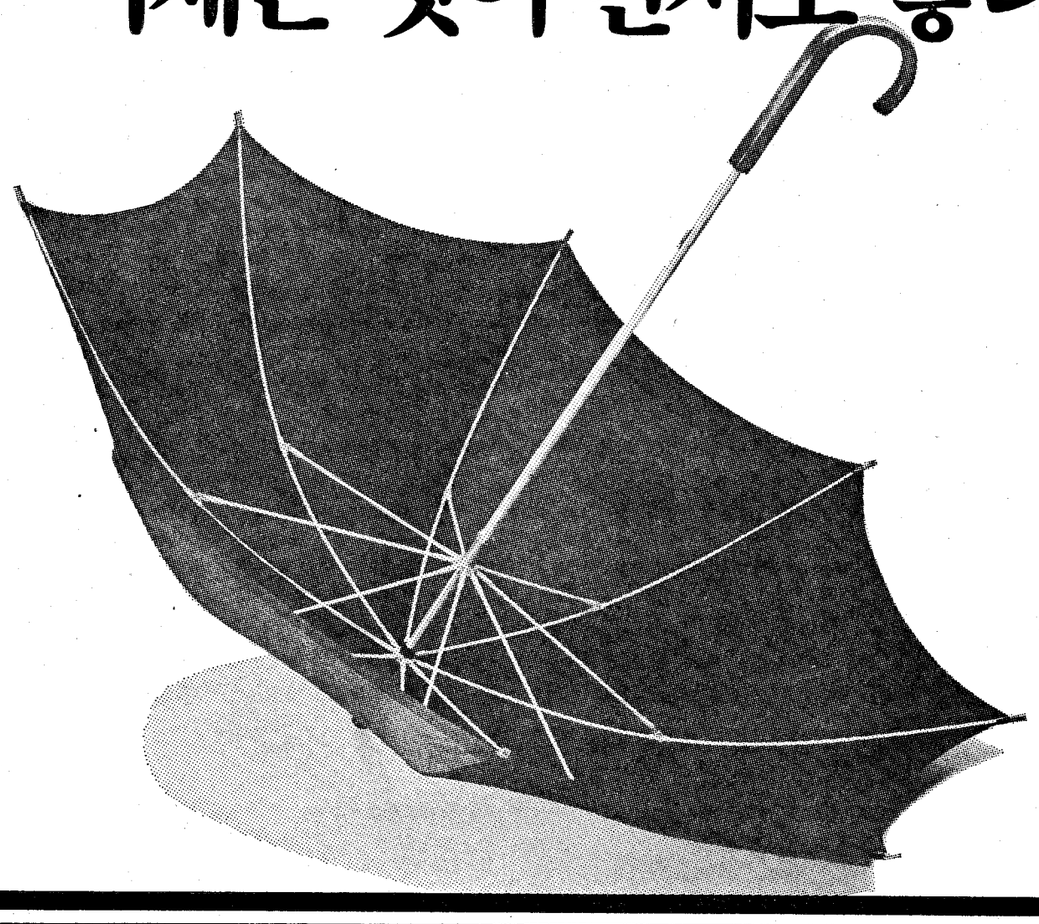
▼이번 축제기간의 최루탄 냄새는 너무나 독했다. 등룡문을 지나는 모든 학생은 코를 감싸고 땀을 뻘뻘 흘리며 1백m달리기를 해야했다. 그리고, 모대학에서 발생, 전국에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는「無」자류 구호가 우리학교에도 나타났다.「歸軍歸学」이 그것.「軍(경찰)이 돌아가면 학생도 돌아간다」고 한 학생은 해석한다.

결코 학생들의 재치 하나만으로 생긴말은 아닌듯하다. 이 시대의아픔, 못난둥이 같은 시대상이 네글자속에 박혀있지 않은가? 더우기 최루탄에 맞아 본교 여러학생이 다쳤다. 모여학생은 최루탄파편이 다리에박히고, 누구는 머리를 다치고, 한 술더떠서 수원캠퍼스의 한학생은지난17일 최루탄에맞아 두눈을 다쳤다. 다음날 새벽 수술을받긴했지만「수술결과는 두고 봐야한다」는담당의사의 말. 과연 수술성과가 나쁠 경우 이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돌을던지며 자유를외치던 다친학생의 잘못인가? 아니면, 학생들을 막겠다고 최루탄을 쏘아댄 경찰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러나, 여기서 누구의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따지진 말자.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진통이기 때문이다.「사회의 민주화」니「민족통일」이니「학원의 자율」이니 하는 이슈를 떠나 한 개인이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이 시대 대학의 불행이기도 하다.

▼최루탄은 문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彈이다. 그러나 최루탄을 쓰기이전에 이 시대의 지성인은 울줄 안다. 또한 경희인 역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판단기준을 못가진 대학생이 시위를 하는 것은 보질 못했다. 울 수 있는 者의 눈을 다치게 한 者 그 누구인가.

"이제는 벗어 던져도 좋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씨는 이번 주말
이제 겨우 열 한살된 막내아들에게
지도와 주소, 여비만을 주어
전남 보성의 먼 친척댁을 찾아가도록 했읍니다.

집과 학교밖에 모르는 철부지에겐 힘겨운 일이라며
아내는 끝내 말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다짐을 굳힌 데는
이유가 있었읍니다.

머리만 까딱하는 인사법에 "…같아요"로 이어지는 말버릇과
무엇이건 소중하게 생각치 않는 마음가짐하며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스탄트 성향 등……
요즘 일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갈밭 이십리길 걸어 학교다니던 일
돌박이 동생 들쳐업고 소먹이다
산허리 돌아 기어오는 기차꼬리를 자꾸 자꾸 세어보면서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어했던 어린 시절 되돌아보며
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읍니다.

낯설고 먼 길 너 혼자 갔다와봐라.
불안, 호기심, 당황, 기쁨, 외로움도 느끼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어떻게 살아나가는 지도 눈여겨 보면서.

그런 뒤에 네가 얻은 것은 자신과 용기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큰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너는
이제 과보호의 우산을 벗어던져도 좋을 것이다.

SSANG YONG 쌍용